



## 시대를 초월하는 역작, 라이카 M-A 필름 카메라와 APO-주미크론-M 50 f/2 ASPH. 렌즈 티타늄 에디션 공개

- 2001년 M6 TTL '티타늄' 에디션 이후 공개 된 6번째 한정판 시리즈
- Leica M-A 필름 카메라와 APO-주미크론-M 50 f/2 ASPH. 렌즈 세트 구성
  - 6월 10일부터 전 세계 250세트 한정 판매



[사진 제공: 라이카카메라]

100년 전통의 독일 명품 라이카카메라에서 시대를 초월한 역작이라고 평가되는 한정판 티타늄 에디션 라이카 M-A 필름 카메라와 렌즈 APO-주미크론-M 50 f/2 ASPH. 를 10일 공개했다. 라이카의 M-A 한정판 티타늄 에디션은 지난 2001년 M6 TTL 에디션 공개 이후 발표된 6번째 티타늄 시리즈다.

이번 한정판 티타늄 에디션은 시대를 초월하는 M-A 카메라 디자인과 APO-주미크론-M 50 f/2 ASPH. 렌즈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결합되어 탄생했다. 새롭게 출시된 이번 제품은 우아한 디자인과 더불어 황동 제품에 비해 훨씬 가볍고 견고하며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.

라이카 M-A 모델은 온전한 기계식 필름 카메라로 오직 사진 촬영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. 모니터, 노출계, 배터리를 배제한 제품으로 라이카 100년의 아날로그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. 사진가는 카메라와 렌즈에서 직접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읽을 수 있어 피사체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으며 어쿠스틱한 셔터 릴리즈를 통해 정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.

또한, M-A 필름 카메라는 함께 세트로 출시되는 APO-주미크론-M 50 f/2 ASPH. 렌즈의 결합으로 완벽한 외관을 자랑한다. 렌즈 외부 부품 역시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스타일리시한 전체 '룩'을 완



성한다. 클래식한 형태의 렌즈는 렌즈 후드를 포함해 1965년 출시한 최초의 50mm 주미크론 모델을 오마주했다. 가장 진보된 기술력의 APO-주미크론-M 50 f/2 ASPH. 렌즈는 극도의 샤프니스와 디테일을 자랑하는 최상의 렌즈다.



[사진 제공: 라이카카메라]

라이카 카메라 관계자는 “아날로그 M 카메라가 티타늄 한정판으로 출시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.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정교한 사진 작업이겠지만 이 에디션을 소장하고 작업하는 과정 자체로 기억에 더 오래 남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.” 전했다.

전 세계 250 세트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라이카 M-A 필름 카메라와 APO-주미크론-M 50 f/2 ASPH. 은 6월 10일부터 선별된 라이카 스토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라이카 카메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###

라이카 홈페이지: <https://www.leica-store.co.kr/>

라이카 인스타그램: [https://www.instagram.com/leica\\_kr/](https://www.instagram.com/leica_kr/)